

인격적 만남의 장인 틴스타 : 성 심리와 인격 발달

전찬용 요한보스코 신부 | 예수회



청명한 하늘과 소리의 공명이 깊었던 계절에 청년들과 틴스타 수업을 하던 첫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틴스타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더니 많은 청년들이 성교육을 떠올렸습니다.

“일반 성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저 성에 대한 지식을 보태주는 정도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틴스타 여정은 별 기대감 없이 무채색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청년들은 처음 가졌던 기대와 달리, 틴스타가 성(性)을 통해 점차 나를 알아가는 인격적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격적 만남의 장, 자신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고, 때론 혼자서 끙끙 씨름하고 있을 법한 주제들 속에서, 서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틴스타에서 만난 청년들은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性)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겠지만,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실체 모두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드러나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 말투, 성향, 감정이 모두가 ‘나’라는 인격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인 ‘나(self)’로 있게 만드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인격체로써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을 느끼고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느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남녀가 만나고 조화롭게 함께 함으로써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남녀의 인격적 사랑은 바로 성(性)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청년들과 함께한 틴스타 수업은 바로 성(性)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적 연대기를 그려보면서 자신의 성 심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가져왔던 성(性)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마음이 쓰였던 부분은 많은 청년들이 성(性)에 대해 긍정적인 체험보다는 부정적인 체험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안에서 성숙한 발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부정적 기억, 혹은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성적 차별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과거 관습에서 비롯된 성적 비하로 인한 부정적 체험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성(性)을 왜곡시켜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性)에 대한 부정적 체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며,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2회의 틴스타 수업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민낯을 여과 없이 개방하고 진솔한 경험을 나누어주었고, 그런 청년들의 용기와 나눔이 있었기에, 더욱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수업이 한 회차 한 회차 진행될수록 점차 최선을 다해 서로 보듬어 안는 모습을 보여준 청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